

2022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보고서

202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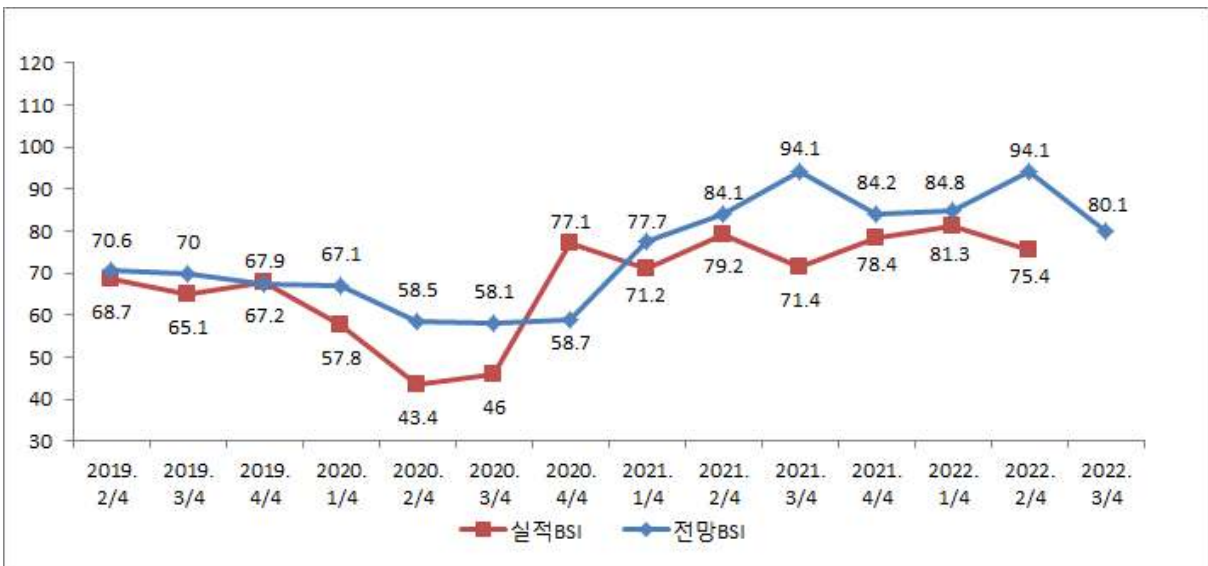
I. 경기전망(BSI)

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기업 경기전망실사지수(BSI)는 전분기(94.1)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80.1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원자재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겹치면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체감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은 공급망 차질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당분간 지역경기의 침체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 2/4분기 BSI 실적치는 지난 분기 81.3 대비 5.9포인트 하락한 75.4로 집계되며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부진하였다.

<경산 · 청도지역 경기전망 B.S.I 추이>



구분 BSI	'19년			'20년				'21년				'22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 BSI	71	70	67	67	58	58	58	78	84	94.1	84.2	84.8	94.1	80.1
실적 BIS	69	65	68	58	43	46	77	71	79.2	71.4	78.4	81.3	75.4	

◆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주요 업종별 3/4분기 전망 BSI는 기계·금속업종이 86.7, 섬유 66.5, 화학·플라스틱 76.6, 기타 업종이 68.7로 나타나 전체 업종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다.

주요 부문별 3/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83.3, 영업이익은 73.3, 설비투자가 73.1, 자금 조달여건은 68.3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하였다.

<주요 업종별·부문별 B.S.I>

항 목	분 기	2022년 2/4분기 실적	2022년 3/4분기 전망
	업 종 별	전 제조업	75.4
기계·금속		74.4	86.7
섬 유		84.1	66.5
화학·플라스틱		67.3	76.6
기 타		60.2	68.7
부 문 별	체 감 경 기	75.4	80.1
	매출액	71.7	83.3
	영업이익	63.3	73.3
	설비투자	88.5	73.1
	자금 조달여건	61.7	68.3

II.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

① 귀사의 금년 상반기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백분율
목표치 초과	3.7%
목표치 달성·근접	29.6%
목표치 미달	66.7%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66.7%가 금년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①에서 '목표치 초과 또는 '목표치 달성·근접'으로 답한 경우)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선택)

	백분율
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	26.3%
내수시장 회복	31.6%
자금 조달 여건 개선	5.3%
환율·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개선	0.0%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5.2%
기 타	31.6%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31.6%가 내수시장 회복을 목표치 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①에서 '목표치 미달로 답한 경우)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선택)

	백분율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병목 지속	18.1%
환율·물가 변동성	28.4%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	7.9%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5.7%
내수시장 침체	23.9%
자금조달 여건 악화	11.4%
기 타	4.6%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28.4%가 '환율·물가 변동성', 23.9%가 '내수시장 침체'를 목표치 미달 원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